

‘해양 수도’ 부산시, 바다의 날 맞이 풍성한 행사 열린다

장보고 대사의 청해진 설치 기념 ‘바다 주간’ 운영... 해양의식 고취 기획전시·동화구연대회 등 마련

부산시가 ‘제27회 바다의 날(5.31)’과 ‘바다 주간(5.27~6.4)’을 맞아 6월 9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바다의 날은 매년 5월 31일, 828년 통일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 대사의 청해진 설치를 기념하는 날로 바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수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996년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부산시는 해양수도로서 입지를 강



부산시가 ‘제27회 바다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부산시

화하고, 변화하는 해양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바다의 날을 전후하여 ‘바다 주간’을 운영하고 시민들의 해양 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올해 제27회 바다의 날을 맞아 ▲해양자연사박물관에서는 5월 20일부터 해양 조류의 가치와 중요성을 조명하는 기획전시 ‘바다의 은밀한 지배자, 해조류’를 개최해오고 있다. 시는 ▲해안가 쓰레기 수거를 위한 ‘바다를 살리는 비치코밍’을 추진하며 ▲6월 8일에는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9일에는 ‘2022 부산해양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아울러, 바다 주간 동안 ▲구·군에서는 다대포 해수욕장과 강서구 등을 중심으로 해양정화 활동을 펼치고 ▲(사)부산항발전협의회는 해양강국 정책제안을 ▲(사)바다와 갈살리기 운

동본부에서는 바다의 날을 기념한 웅변대회·글짓기대회·미술대회·동화구연대회·시 낭송 대회 등 전국 문예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바다의 날을 맞아 시민들에게 바다의 잠재력과 소중함을 되새기는 한편, 앞으로도 부산이 해양수도로서 자리매김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바다를 통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에서 추진하는 ‘바다의 날 기념식’은 31일 오전 11시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인 부산항 북항에서 ‘신해양강국 재도약’을 주제로 개최됐다. /부산=장병호 기자

metrobusan1@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한국남부발전 주요발전소 맞춤형 재난 대응훈련

한국남부발전이 최근 안동·부산·신인천·삼척빛드림본부 등 주요 발전소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 현장 맞춤형 재난 대응훈련을 시행했다.

이번 재난 대응훈련은 남부발전이 소방서 등 지역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본부별 특성에 맞춘 실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오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여수시, 환경시설 개선 속도

국비 33억 추가 확보... 총 187억 녹지 조성 등 기반시설 정비 계획

여수시는 지난 26일 전라남도에서 ‘오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함에 따라 토지보상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오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구계획을 전남도에 승인 신청해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협의절차를 거쳐 26일 승인이 완료됐다.

총사업비도 국토부 승인으로 국비 33억 원을 추가 확보해 134억 원에서 187억 원(국비90, 시비97)으로 늘어나게 됐다.

‘오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지난 2017년 국토부에서 주관한 ‘노후 산업단지 정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다.

산단 도로 신설 및 확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원과 녹지 조성 등 기반시설 정비와 환경개선을 주된 사업내용



여수시 ‘오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구

으로 한다.

시는 6월 중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올 하반기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해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수시는 산단 근로자의 근로여건과 주변 인프라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추후 남해안 산업 및 관광 활성화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전남)=김용학 기자 jiiacecom@

경남도의회, 도민 의견 의정에 적극 반영

의회 개원 후 첫 인식조사 실시

경상남도의회는 오는 7월 개원하는 제12대 경상남도의회에 바라는 점, 의정활동 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해 도민의견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이번 ‘제12대 경상남도의회에 바란다’ 도민 인식조사는 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이며 도의회 누리집(홈페이지), 홍보 배너 내 QR코드로 참여할 수 있다.

도민 인식조사 내용은 제12대 경상남도의회의원들의 역할과 경제·일자

리, 복지 등 의정활동 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 ‘경상남도의회에 바라는 점’ 등 서술식 2개를 포함 총 9개 문항으로 구성해 도민들이 바라는 점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민 인식조사 참여자가 가운데 50명을 선정해 제로페이 경남사랑상품권(1인당 1만원)을 지급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해 많은 도민들이 인식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인식조사를 통해 도민과 소통을 확대해 제12대 경상남도의회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더 구체적인 정책 주제를 선정해 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장성 백양사 템플스테이

부산시-체육회 지역스포츠과학센터 공모 선정

매년 운영비로 3억 지원

부산광역시체육회와 부산광역시체육회 협력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22년 신규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운영자 선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센터 설립에 필요한 국비예산 7억 1000만 원을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되며, 매년 운영비로 3억 원을 지원 받는다.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운영 사업은 권역별 지역에 스포츠과학센터를 구축해 지역소재 학생 및 실업팀 선수를 대상으로 체력측정, 상담, 훈련 등 스포츠과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전문선수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1차 현장실사,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우수한 평가

를 받은 부산광역시체육회와 경상남도체육회가 최종 선정됐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체육회관 1층에 부산스포츠과학센터가 설치될 예정으로, 부산 관내 전문체육 선수들의 기량 향상 및 우수 선수 POOL 확보를 위해 조속히 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스포츠과학센터는 오는 9월 개관하여, 선수와 지도자들이 운동 처방에 따라 훈련 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해 향후 국제·국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있도록 스포츠과학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는 부산지역 전문선수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훈련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백양사 템플스테이’ 웰니스 관광지 선정

전남 대표 치유 여행지

장성군은 ‘백양사 템플스테이’가 (재)전라남도관광재단이 주관한 ‘전남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 대표 웰니스 관광지 공모사업은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전남을 대표하는 치유 여행지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백양사 템플스테이’를 포함해 도내 관광지 7개소가 선정되었다.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곳은 전남관광재단으로부터 웰니스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물 제작,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원받는다.

백양사 템플스테이는 1700년 한국 불교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백

양사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경험하는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이다. 휴식형과 체험형으로 나뉘는데, 휴식형은 사찰에 머물며 자유롭게 쉬면서 예불과 공양, 타종체험, 사찰 예절 교육을 받는다.

체험형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는 사찰 음식의 대가 정관스님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체험’이 대표적이다. 정관스님은 넷플릭스 ‘셰프의 테이블’에 출연해 사찰음식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었으며, 아이콘 어워드 아시아 2022 수상자로 선정된 인물이다.

장성군은 이번 웰니스 관광지 선정으로 백양사 템플스테이가 전남 대표 치유 관광지로 각광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장성(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남도해양열차 운행 재개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남도해양열차(S-트레인 경전선) 운행이 4일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

남도해양열차는 경상도(부산역)에서 출발해 전라도(광주송정역)를 가는 유일한 관광열차로, 매주 토·일요일 운행된다.

열차 외부는 푸른 물결을 반영한 파도의 형상으로 꾸며져 있고, 내부는 동백꽃·거북선·학 등의 콘셉트로 디자인했다. 객실은 힐링실, 가족실, 이벤트실 등으로 이뤄졌다.

/부산=이도식 기자

부산경제진흥원 크리에이티브샵 입점제품 모집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지역 창업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장인 ‘크리에이티브샵’에 입점할 제품을 오는 6월 9일까지 모집한다.

2017년 문을 연 크리에이티브샵은 창업기업 제품의 테스트베드이자 체험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광복동에 있는 판매장뿐만 아니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난해 대비 180%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로 오프라인 매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